

한약재 밀수입 16배나 폭증

지난해 694억원...고추 160억 · 생강은 82억

지난해 농산물과 한약재 밀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2002년 밀수·부정무역 검거동향을 분석한 결과 농수축산물 밀수는 1,298억원으로, 전체 밀수액 5,487억원의 2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 가운데 농산물은 429

억원(253건)으로 2001년 370억원(248건)보다 16%가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고추가 16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생강 82억원, 참깨 38억원, 흰콩 24억원 순이었다. 한약재는 2001년 39억원(109건)보다 16배가 증가한 694억원에 달했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농산물은 간소화된 통관절차와 국산품과의 식별곤란 등으로 단속망을 피하기 쉽기

때문에 밀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최근 밀수행태가 조직화·대형화되고 있어 관련분야 종사자의 제보가 절실한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밀수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 125번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이용하면 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산 당귀 수매기로 제50차 수급조절위 결정

2003년도 상반기 수급조절품목 수입량이 결정됐다.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위원장 송경태)는 지난 3월11일 열린 제50차 회의에서 지황 635톤, 창출 124톤, 적하수오 36.5톤, 백출 470톤, 시호 100톤, 오미자 100톤 등 총 1,465.5톤의 수입약재 반입을 결정했다.

지황은 오는 8월 31일까지 창출 등 5개 품목은 오는 6월30일까지 통관조건이다.

수입 결정량은 9개 단체에 균등 배정(지황 535톤 및 시호 제외)키로 했다.

한편, 이날 수급조절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해 재고량 누적으로 시세가 생산원가 이하로 폭락한 국내산 당귀 95톤을 수매기로 결정했다.

인공 배양 삼 식품원료로 허용 인삼 재배농가에 영향 미칠듯

동식물이나 그 추출물이 아닌 인공적으로 조작배양된 물질이 국내에서 처음 식품 원료로 허용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삼(蔘) 뿌리 조직을 인공적으로 배양시켜 만든 물질인 '배양 삼'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입안 예고 했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청은 조직 배양한 삼을 식품 원료로 허용해줄 것을 한 바이오벤처가 요청했으며 이 업체가 제출한 독성시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직 배양 삼은 짧은 시간

에 대량생산이 가능해 식품 원료로 허용되면 인삼 재배농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한약재의 조직 배양물질에 대해서도 식품 원료로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배양 삼을 사용한 건강식품 등의 개발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약용작물 소득화 추진 예천, 산초등 재배지 조성

경북 예천군은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약용작물 소득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예천군은 이를 위해 올해 더덕·오갈피·산초·한약재 등 약초 재배단지 조성해 특화작목으로 집중 육성해나가기로 하고 모두 4,600만원을 들여 묘목 구입비와 종자대·가공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더덕의 경우 주산지인 보문면에 10ha, 오갈피는 상리면과 보문면에 3.5ha, 산초는 용문면에 10ha 규모로 각각 조성하고 감천면에는 황기와 길경·하수오 등 13종의 한약초 재배단지 12ha를 조성할 계획이다.

☎054-650-6277.



국제식품료 박람회 참석

이주찬 청양구기자시험장장 = 3월10~14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日本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국제식품·음료박람회에 학술회의에 참석하고 2006년도 충남에서 개최되는 벤치농업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벤치마킹 및 홍보전략 습득, 일본식품박람회 현황 등을 파악하고 14일 귀국.



사설

신 집행부에 바란다

생약협회를 이끌어갈 13대 회장단이 출범했다. 이번 회장단은 그동안 협회가 계획하고 추진하던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그간 개혁의 주체가 되었던 인물들을 재 영입하여 구성했다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엄경섭 회장의 평소 넓은 해안과 우직하고 강인한 추진력에, 과거 협회의 숙원사업을 깊숙이 파악하고 있는 부회장들의 영입은 공백기 없이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더욱 이번 13대 회장단에 거는 기대도 크다.

우선 생산기반을 유지하면서 협회가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는 사업을 과감히 개발해야 한다.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 등을 통해 우리생약 살리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큰 성과를 거둔 바, 그 재개를 바란다.

전국에 설립되어 있는 생약농업법인의 조합원들도 회원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흡수하고, 생산농민들의 생산과 판매를 실질적으로 지도해 생산자단체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생약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전국의 주요 산지를 중심으로 '1권역 1품목' 집중육성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기반 조성에 힘써야 한다.

서양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지금 생약을 원료로 한 건강식품 개발은 물론이고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전통한의학의 세계화 과학화 추세에 발맞춰 기초산업인 국내생약농업의 육성책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게 마련돼 나가야 할 것이다.

신임회장을 비롯 새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회원들의 믿음과 절대적인 지지가 선결되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잘못된 운영으로 인한 피해는 생약농업 전반으로 파급효과가 미친다는 사실도 재 각인해야 한다.

생약인 스스로도 약용작물 경쟁력제고를 위해 원가절감과 고품질화를 이뤄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전문가적인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국내생약농업을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5만3천여 생산농가와 늘 함께 하며 더불어 성장해 가는 생약협회, 신 집행부가 되기를 기대한다.

속리산 '자생식물 유전자원실' 설립 추진

오는 2004년까지 총 10억원 투입

속리산 일대에 자생하는 희귀식물의 유전자원 보존과 관광객 생태체험을 위한 유전자원실 설립이 추진된다.

충북 보은군은 오는 2004년까지 총 10억원(국비 5억원, 군비 5억원)을 들여 속리산 국립공원 인근 3만여㎡에 자생식물 유전자원실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 곳에는 각종 식물류를

재배·증식하는 유리온실(660㎡),자동화하우스(900㎡)를 비롯, 잡자리, 나비, 곤충 등을 사육하는 생태관(660㎡), 습지 동식물을 볼 수 있는 생태연못 등 연구 시설이 들어선다.

또 속리산의 자연생태를 그대로 옮긴 1만㎡ 규모의 자연학습원이 조성돼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다양한 약초와 자생식물, 토종과실, 희귀식물 등을 관람하게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새로 건립되는 유전자원실은 희귀식물의 보고인 속리산 생물유전자원을 수집하고 보존 분양하는 기능을 맡게 될 것"이라며 "올 상반기 부지를 확정된 뒤 곧바로 사업에 나서 내년 말 일반에 개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시, 한방과학산업 육성

5천만원 용역비 들여 기본계획 수립

전북 익산시는 지역 학계와 경제계의 도움을 받아 한방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익산시는 최근 "원광대 한의대의 우수 인재들을 주축으로 행정기관과 지역 상공인들이 합심해 한방을 이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익산시는 이를 위해 최근 원광대 전통의학연구소와 한의사협회, 상공회의소 대표들로 구성된 '한방과학산업 육성발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한의학 연구개발과 우수 인력 양성 방안을 모색하고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한방 약초연구소와 한의학 박물관 건립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한방정보산업 활성화와 한방약재 전지상거래 시장을 구축해 지역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이를 위해 올해 5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한방산업 육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본계획을 토대로 연차별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한 뒤 이를 예산에 반영하고 국·도비 지원도 받을 방침"이라고 말했다.